대전주보

2021년 사목지표
신앙과 삶이 하나되어 모두 한 형제로 걸어가는 공동체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희년
2020.11.29~2021.11.27

발행 유흥식(제2618호) **편집** 천주교대전교구 홍보국 **전화** 044 · 270 · 3000 **팩스** 044 · 270 · 3043
주소 30148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5로 12 **E-mail** tjubo@hanmail.net **홈페이지** http://www.djcatholic.or.kr

강경성당 세도공소
충청남도 부여군 세도면 부흥로912번길 9

사순 제3주일 2021년 3월 7일(나해)

제1독서 탈출 20,1–17

화답송
◎ 주님, 당신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 주님의 법은 완전하여, 생기 돋우고, 주님의 가르침은 참되어, 어리석음 깨우치네. ◎
○ 주님의 규정 올바르니,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님의 계명 밝으니, 눈을 맑게 하네. ◎
○ 주님을 경외함 순수하니, 영원히 이어지고, 주님의 법규들 진실하니, 모두 의롭네. ◎
○ 금보다 순금보다, 더욱 값지며, 꿀보다 참꿀보다, 더욱 달다네. ◎

제2독서 1코린 1,22–25

복음 환호송
◎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 하느님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네. ◎

복음 요한 2,13–25

영성체송
주님 제단 곁에 참새도 집을 짓고, 제비도 둥지를 틀어 거기에 새끼를 치나이다. 만군의 주님, 저의 임금님, 저의 하느님! 행복하옵니다, 당신 집에 사는 이들! 그들은 영원토록 당신을 찬양하리이다.

2021년 총 모금액 **68,462,457원** 2.17~21 모금액 본당 1,314,880원 / 단체 및 개인 1,878,460원

2021년 유네스코 세계기념해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희년

백신 나눔 운동

계 좌
하나은행 633-910012-80104
예금주
사회복지법인대전가톨릭사회복지회
문 의
(042)635-5111
(044)270-3002

백신의 완성은
'나눔'입니다

한끼100원나눔운동
2021년 사랑의 온도현황
6.8℃

말씀의 향기

우리는 주님의 아름답고 귀한 성전입니다

장태혁 요셉
대전성모병원 원목실 차장

우리는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 성전에 모입니다. 성전에 앉아 우리의 주님이신 하느님을 찬미하며 미사를 봉헌하고, 또 성체를 받아 모시면서 그분의 한없는 자비와 사랑을 체험합니다. 때론 내 나약함에 가슴을 치며 죄를 뉘우치기도 하고 그분 안에서 평화와 안식을 얻기도 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세상에 많은 이들을 위해 하느님께 기도합니다.

예절과 방식은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당시 이스라엘에서도 그랬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느님께 제물을 바치고 예배드리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습니다. 옛날도 지금도 변함없이 성전은 하느님께서 거하시는, 하느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보신 예루살렘 성전은 그런 모습과 달랐나 봅니다. 거룩한 성전은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탐욕에 가득 차 있었고, 하느님보다 특권층의 이익이 더 우선시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느님을 잘 만날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할 성전이지만, 오히려 폭리를 취하고 부담을 주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른바 '장사하는 집'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전의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채찍으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고 탁자들을 엎어버리면서 성전을 정화하셨습니다. '온화한 사람이 화를 내면 더 무섭다.'고 하지요. 우리가 기억하는 예수님은 늘 인자하고 사랑이 넘치는 분이시기에, 오늘 이 예수님의 다소 과격한 모습이 우리에게는 매우 낯설고 의아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습 안에 있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당신의 성전에 대한 깊은 애정, 죄와 탐욕에 물들어 있는 성전의 모습에 결코 타협하지 않으시는 단호함, 그리고 본연의 아름답고 거룩한 성전으로 돌아가길 바라시는 간절함... 자신의 자녀를 너무나 아끼는 부모와 같은 이 예수님의 마음이, 회개와 정화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느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몸을 모시는 우리는 하느님께서 거하시는 작은 성전입니다. 이 사순 시기, 주님께서 바라시는 본연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으로 돌아가는 은총의 시간 보내시길 희망합니다.

바울이
(903)
유판식 토마스

지구의 권리를 보장하라!

인권을 넘어서 지구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이 필요하다. 그래야 인권을 지킬 수 있다.

지구상의 여러 나라에서 '자연의 권리'를 찾아주려는 소송의 사례들이 있는데, 남아메리카의 에콰도르는 2008년에 헌법개정을 통해 세계 최초로 헌법전(典)에 자연의 권리 조항을 두게 된 나라다. 실제로 강의 권리에 대해 주장해서 망가진 강의 흐름과 생태를 복원하도록 명을 받은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개발행위에 대한 소송에서 자연의 권리를 고려할 것을 주문받고 있다. 에콰도르는 생태 선진국이다.

나도 농업법인의 이름으로 우리농촌살리기운동을 하고 있는데, 사람이 모인 어떤 단체에 법인격을 부여해서 활동하도록 하는 것처럼 많은 나라들에서 자연물에 대해서도 법적 실체성을 부여하고 있다.

인도의 경우, 2017년에 인도 우타라칸드주(州) 고등법원은 갠지스강과 야무나강의 법적 권리를 인정했다. 법원은 지류를 포함해서 이 두 강이 법인(legal person)의 지위를 갖는 살아 있는 실체임을 선언했다. 이외에도 콜롬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에서 유사한 '자연의 권리'가 인정되고 있는 경우들이 보고되고 있다.

이미 대전환이 시작되었다.

뉴질랜드의 황거누이강은 원주민인 마오리족이 신성시하는 290킬로미터를 흐르는 수로인데, 황거누이강은 불가분의 살아 있는 유기체로 뉴질랜드 중앙의 산들로부터 바다에 이르기까지 모든 물질적 정신적 요소들을 포용하고 있다고 마오리 공동체는 믿고 있다. 1873년 이래로 마오리족은 이 강과의 특별한 관계를 인정받고자 정부를 상대로 150년 간의 긴 싸움을 해 오다가 2017년에 황거누이강의 법인격을 인정받기에 이르른다. 이제 이 황거누이강은 법에 따라 권리와 의무, 책임 등 인간이 가진 것과 같은 법 지위를 갖게 되었고, 마오리족 공동체가 임명한 대표자 1명과 정부가 임명한 대리자 1명으로 구성된 보호자가 강의 건강과 안녕의 이익을 대변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도 헌법 개정을 통해 '자연의 권리'를 명시적으로 헌법전(典)에 넣어야 한다.

우리농 생명공동체 www.weform.or.kr

강승수 요셉 신부 대전가톨릭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1. 새로운 시대의 태동: 공의회 전(前) 역사 ① – 나와 상관있는 이야기

말간 가을 아침 영롱한 이슬 속에 핀 노오란 국화를 보기 위해선 봄부터 소쩍새가 울어야 하고 간밤에 무서리도 내려야 한다. 눈부신 봄날 고운 노래 부르며 하늘 높이 나는 종달새는 먼저 알을 까고 나와야 그 봄빛을 만날 수 있다. 성경이 말하는 천지창조 이전에도 어둠이 심연을 덮고 하느님의 영이 그 물 위를 감돌고 있어야 한다(창세 1,2 참조). 모든 새로운 시작은 거저 이루어지지 않는다. 고통과 인내의 시간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그 안에는 인고의 시간만이 아니라, 사람이 다 예측할 수 없고 도저히 파악할 수도 없는 신비가 들어 있다. 고통과 인내와 신비, 그것만으로도 새로운 시작은 이미 하도 장엄하여, 우리는 마음의 옷깃을 여며야 하리라. 이 새 시작의 매력은 단 한 번으로 끝나면서도 동시에 끊임없이 계속된다는 것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의 새 희망이 있다. 우리가 이제부터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 고통과 인내와 신비 속에 계속되는 새로운 시작 이야기이며, 그 새 시작에 함께 계시는 하느님과 나의 이야기이며, 또 나와 너, 우리(교회)의 이야기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새로운 시대의 태동은 무엇보다 나와 상관있고, 내가 믿는 하느님과 상관있다. 인류 역사뿐만 아니라 교회 역사에도 어김없이 명암의 면면이 있다. 그러나 묘하게도 그 명암의 면면을 거쳐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이루어내는 건 그 역사 순간순간 하느님 손길이 함께하신 때문 아닐까? 여기에서 전체 교회사를 다 살펴볼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나 새 시대 태동의 전조는 살펴야 하지 않겠는가. 새 시대, 제2차 바티칸 공의회(1962–1965)는 어떻게 교회의 2000년 큰 물줄기를 바꿔 놓게 되었나?

우선, 교회의 가르침은 고래로 '이 세상과 인간은 하느님께로부터 창조되었고, 이 하느님의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는데, 그것은 곧 하느님께서 세상을 너무 사랑하시어 당신 외아들을 보내셔서 그를 믿는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함'(요한 1,14; 3,16 참조)이라는 것으로 압축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러한 교리는 단박에 이해될 수 있는 간단명료한 가르침은 아니다. 인류사와 교회사를 통해 늘 도전받았고 오늘날에도 예외는 아니다. 교회는 시대별로 맞닥뜨린 오류들을 단죄하면서 그 가르침을 견지해 왔다. 그러나 현대 세계는 교회가 제시하는 일련의 답들 속에서가 아니라 오히려 일련의 새로운 의문들을 던지면서 시작되었다. 이 의문의 발단은 1859년 「종의 기원」을 통해, 인간이 자연도태와 적자생존의 법칙에 의해 원숭이로부터 유래되었다는 다윈(C. Darwin)의 주장이었다. 이처럼 성경의 묘사와 교회의 전통적 가르침과 다른 자연과학적 주장이 생겨나면서 사람들은 아주 중대한 현대적 물음을 제기한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에 대한 교회의 답은 인간의 기원은 하느님 안에 있고, 인간은 하느님과 그리스도 안에 살도록 부름받고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현대 사람들은 이 가르침에 도전했고, 하느님과 종교 없이 살겠다는 세속주의가 20세기 현대사회의 한 사조가 되면서 또 하나의 중요한 현대적 물음이 제기된다: '교회는 무엇을 위해서 있는가?' 결국 이 두 물음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소집의 단초가 된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서명옥 로사 대전가톨릭대학교 기초신학 강사

교구 내 공소

강경성당 세도공소

1956년 당시 강경본당 주임인 목세영 율리오 신부는 세도 지방의 전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망개 부락에 살고 있던 최 가밀라 집에서 처음으로 공소를 본 이후 1년이 지나는 사이 신자 수는 20여 명으로 늘어났다. 1958년 말 현 위치의 대지를 매입하고 본당 부속건물을 철거하면서 얻어진 목재로 28평 규모의 강당을 건립했다. 이때 신자 수는 약 100명으로 급증했다. 점점 신자 수가 증가하면서 강당이 협소하고 낡아 1984년 10월에 새 공소 건물을 착공하여 1985년 3월 31일 경갑룡 요셉 주교의 주례로 축복식이 거행되었다. 현재, 이 공소에는 60명의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두 번째 신세계

오정희 마리아 순성본당

집에서도 미사를 봉헌할 수 있다니... 평화방송은 저에게 신세계였습니다. 최대한 늑장 부리다 눈꼽만 떼고 추리닝 입고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기만 하면 됐습니다. 게다가 주교님들과 유명한 신부님들께서 봉헌하시는 평화방송 미사는 늘 익숙한 본당미사보다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심지어 성당에 나가 봉사하지 않아도 되고, 미운 얼굴 보지 않아도 되고... 그뿐인가요? 집에서 평화방송 미사를 봉헌하면 대송이 될 수 있다니요. 부득이한 상황에 간절한 열망만 있으면 신령성체를 할 수 있다니, 코로나로 인해 직장도 안 나가게 된 저에게는 신세계가 열렸습니다.

그러다 문득 두려움도 생겼습니다. "다시 미사가 시작되면 어쩌지? 이렇게 평화방송으로 미사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얼마 안 되는 그 짧은 시간 동안 놀랍게도 평화방송 미사에 몸이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평화방송에 빠져 있을 즈음, 성당에서 한 통의 편지가 날아들었습니다. 봉투를 열어본 순간 저는 깜짝 놀라 몸이 그대로 굳어 버렸습니다. 분홍색 한지로 된 이쁜 편지지에는 주임 신부님께서 한 글자 한 글자 직접 쓰신 손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서서히 편지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참 많이 보고 싶습니다.'라는 신부님의 인사말부터 마음을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신부님은 '양떼 없는 목자'가 되었다며 저희들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별 볼 일 없는 신부님 자신께 사제의 존재 이유였음을 깨닫게 되었다는 말씀이 쓰여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200여 년 전 한 대의 미사를 목말라했을 신앙 선조들을 기억하자고, 그렇게 목마름을 견디며 영적인 단식의 시기를 보내자고, 편지에 신부님의 마음을 담아 집집마다 보내주셨습니다.

정신이 번뜩 들었습니다. 그 순간 얼마나 성당에 가고 싶어졌는지요. 다시 한 대의 미사가, 예수님의 성체가 배고파졌습니다. 성당에 도착해 조심히 성당문을 빼꼼 열어보니 신부님은 제대 위에서 미사 준비를 하고 계시더군요. 마주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가라 하면 어쩌나...' 눈을 피해 유아실에 숨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지요. "니가 왜 거기서 나와!" 유아실에는 벌써 주인이 있었습니다. 잘 알고 지내던 자매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성당에는 대여섯 명의 교우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신부님께서는 그 누구도 돌려보내지 않으시고 우리는 함께 미사를 드렸습니다. 얼마 만에 맛본 주님의 몸인지요! 성체가 어찌 그리 달콤하고 감사하던지 제 안에 영적인 갈망이 다시 불타오름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예전에도, 코로나 이전에도 저는 신앙에 대한 갈망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미사가 너무나 흔해서, 언제든 영성체를 할 수 있어서, 그것만으로는 영적인 갈증이 해갈되지 않는다고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많이 미사를 봉헌하고 성체를 영하면서도 더 큰, 더 감동적이고 더 자극적인 그런 신심을 원했던 저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이 한 번의 간절한 영성체는 저의 모든 영적 목마름을 해갈해 주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그렇게 회개의 미사이며 감동적인 미사를 마치고 함께했던 자매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서로 성경읽기를 해 보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우리는 카톡방을 만들어 성경읽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매일 행복한 마음으로 도둑(?)미사를 참례하고, 성경을 낭독했습니다. 돌이켜보니 코로나는 제게 새로운 신앙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그야말로 신세계였지요.

그런데 그 행복도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저와 같은 마음이었던 분들이 하나둘씩 늘어나 성전에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신부님께서는 걱정이 되셨는지 사제관에서 홀로 미사를 봉헌하시겠다는 청천벽력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허탈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으나 저를 비롯한 우리 성경읽기그룹은 예전의 우리가 아니었습니다. 신부님께서 사제관에서 홀로 미사를 봉헌하시는 11시에 성전에서 십자가의 길을 함께 바치기로 했습니다. 네 명의 여인이 함께 십자가의 길을 바치며 얼마나 울었는지요. 매일이 울음바다요, 매일이 회개의 순간이었으며, 매일이 천국이었습니다.

다음주에 이어집니다.

교구알림

교구 법원 공시
- 아래 공시되는 분은 혼인과 관련하여 문의할 것이 있으므로 교구 법원으로 나오시거나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성명 : 홍신식(1962년생)
- 담당판사 : 박지목 신부
- 때 : 2021.3.20(토)까지
- 문의 : (044)270-3060 교구법원

3월 예비신학생 모임 안내
- 대전고등부 3.28(주일) 10:00 비대면 모임
- 대전중등부 3.14(주일) 10:00 비대면 모임
- 공주 · 논산 · 세종중고등부 3.21(주일) 10:00 비대면 모임
- 천안 · 아산중고등부 3.14(주일) 10:30 비대면 모임
- 홍성 · 서산 · 당진 · 보령중고등부 3.28(주일) 10:30 비대면 모임

전담사목

청년 떼제기도
- 때 : 3.10(수) 19:30~21:30
- 곳 : 하품센터(천안시 서북구 월봉5길 23)
- 대상 : 함께 기도할 청년 누구나
- 주제 : 나를 이끄시는 분...
- 내용 : 떼제기도, 고해성사 등
- 문의 : (041)572-7179 / hapum7179@daum.net

아자리아 예비단원 모집
- 대상 : 만 32세 이하 미혼 남여
- 조건 : 성령 묵상회를 이수한 누구나
- 문의 : (042)824-6773
- #인스타그램 @azariah_1985

성체강복과 함께하는 기도회
- 때 · 곳 : 3.11(목) 19:30, 새얼센터
- 내용 : 성체강복, 말씀묵상, 미사 등
- 선착순 : 60명
- 문의 : 교구 성령쇄신봉사회 (042)824-6771

치유미사
- 때 · 곳 : 매주 화 14:00, 새얼센터
- 내용 : 미사, 치유기도(영적, 내적, 외적) 등
- 문의 : 교구 성령쇄신봉사회 (042)824-6771

카나혼인강좌
-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교육으로 진행
- 문의 : (042)256-5487~8
- 인터넷신청 : http://familia.djcatholic.or.kr 대전교구 가정사목부

교구 내 기관 및 시설

2021년 생태환경위원회 1차 연수
- 주제 : 정의로운 에너지
- 때 : 3.20(토) 09:00~15:00 / 신청마감 : 3.10(수)
- 곳 : 대전가톨릭문화회관
- 대상 : 누구나(생태환경분과장 및 활동가 필히 참석 요망)
- 참가비 : 2만원(점심식사 제공)
- 접수 · 문의 : 010-3452-9702 생태환경위원회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탄생 200주년 특집 라디오 드라마
- 때 : 2.22(월)~4.3(토)까지 / 월~토 07:50 (본방) / 16:50 (재방)
- 재미! 감동! 새로운 깨달음! 사순절에 누리는 특별한 은총!

서천군립노인요양병원 입원 안내
- 천주교 대전교구 / '치매안심병동' 운영
- 신경과, 피부과, 가정의학과, 외과, 한의과
- 주일 · 평일 미사 및 봉성체
- 문의 : (041)950-1008

대전가톨릭사회복지회 느루 근로장애인 모집
- 만18세 이상 40세 미만 발달장애 (지적, 자폐성)로 출 · 퇴근이 가능해야 함
- 문의 : (042)637-2257 느루 보호작업장

대전가톨릭 나눔의전화(무료상담)
- 이용시간 : 월~금 10:00~17:00
- 무료상담 : 인생, 가정, 청소년, 신앙 , 법률
- 문의 : (042)222-8844

대전가톨릭가정폭력상담소(비밀, 무료상담)
- 가정문제 부부갈등, 자녀문제, 가정폭력, 가정법률 그 외 기타(심리검사)
- 상담방법 : 전화, 면접, 서신(Fax 포함) E-mail:domestic-vcc@hanmail.net
- 상담시간 : 월~금 09:00~18:00
- 문의 : (042)636-2033~4, Fax 636-2035

교구 외 기관 및 시설

2021 가톨릭교리신학원 통신(우편) 신학과정
- 대상 : 가톨릭 수도자 및 평신도 (만 18세 이상, 학력제한 없음)
- 내용 : 가톨릭 신학 26과목
- 원서접수(추가) : 3.31(수)까지(우편신청가능)
- 문의 : (02)745-8339
- 홈페이지 : ci.catholic.ac.kr(원서다운가능)

내면아이 치유 피정
- 때 : 4.2(금)~4(주일) (2박3일)
- 내용 : 상처받은 내면아이를 돌보는 마음여행
- 문의 : (042)862-9780

대전 밀레마니 문화영성 센터
- 프로그램 : 전례초조각, 캘리그라피, 가곡/성가, 영화와말씀피정, 성경공부
- 전례초연구소 수강생모집(초/중/고급/강사반)
- 문의 : (042)226-8185 서대전네거리역8번출구

돈보스코 내일이룸학교 학생모집
- 대상 : 15~24세 남 (학교밖 청소년)
- 내용 : 기계가공, CAD/CAM, 인성교육
- 기간 : 2021.2~12 / (02)828-3600
- 혜택 : 교육비, 기숙사무료, 수당지급
- 최근 5년 평균 취업률 89.2%

교회 운동 및 인준단체

가톨릭 다도회 신입회원 모집
- 봄학기 : 3.2~6.11 (화-오후반 / 수-오전반 / 선비반)
- 개강 : 3.2(화), 가톨릭문화회관 217호
- 문의 : 010-9295-1490, 010-9362-0981

연세내과 (365일 24시간 진료) 내과전문의 박준용(베드로) 둔산 타임월드 정문 앞 T. (042)485-8000	**행복나눔 이사** 사무실 이사, 포장 일반 이사 이종수(야고보) 김영숙(실비아) T. 1877-9924, 010-6671-2489	**세종성모내과** 내분비 질환 중점진료 당뇨병, 갑상선, 고지혈증, 대사증후군 세종시 한누리대로 492 청암빌딩 4층(환경부 앞) T. (044)905-0606 원장 이강우 도미니꼬	**이광우 치과** 원장 이광우 타데오 타임월드 별관 2층 T. (042)483-7528, 489-7528	**제주성지 순환버스** 제주성지 6곳 39,000원 주차도 59,000원 (2월15일부터 2인이상 매일출발) 미카엘 여행사 010-8650-9690
척추 · 관절 **허리사랑병원** 대표원장 : 김관태(바오로) 척추 · 관절 전문의 10인 진료 T.(042)528-7588 롯데백화점 옆	**이바르게 치과교정과 치과** 교정과전문의 홍성규(미카엘) 브라켓없는 3D 디지털투명교정 타임월드네거리 (042)482-3601	**바로세움병원** 척추,관절 집중치료 서울아산병원 출신 황인석 대표원장, 김경훈(요한)원장, 강재환(필립보)원장 외 5명 협진 (042)489-8888 대전 서구 둔산남로107	**맑은눈 안과** 라식,라섹,노안,백내장 T. (042)476-0075 정부청사역 4번 출구	**더 웰 피부과** 박장규(안토니오) 김형주(방지거) 유성점 T. (042)825-3045 유성온천역 6번 출구
광고 모집 (042)257-0190	**광고 모집** (042)257-0190	**광고 모집** (042)257-0190	**대전베스트정형외과** 척추, 관절, 외상 전문 대표원장 양준영(가롤로) 전충남의대 교수 T.(042)345-7700 유성구 봉명동 604-1	**에스티 피부과** (전 을지의대 교수 / 현 충남의대 외래교수) 김윤동(사도요한) 롯데백화점 옆 T. (042)535-5800

천주교 대전교구 합창단 단원모집
- 연습 : 매주 화 20:00, 원신흥동성당
- 문의 : 010-9656-2295 (단장 : 서옥경 가타리나)
- 담당사제 : 전원석 베드로

수도회 및 피정

제주면형의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 수도회수사들과 제주성지 · 역사 · 평화순례, 미사(성무일도), 나눔, 올레길 · 오름 트레킹
- 자연순례피정 : 3.27~29, 4.16~18, 4.26~28, 5.1~3, 5.22~24
- 성지순례피정 : 3.15~18, 3.21~24, 4.5~8, 4.11~14, 4.21~24
- 접수 : (02)773-1463, (064)756-6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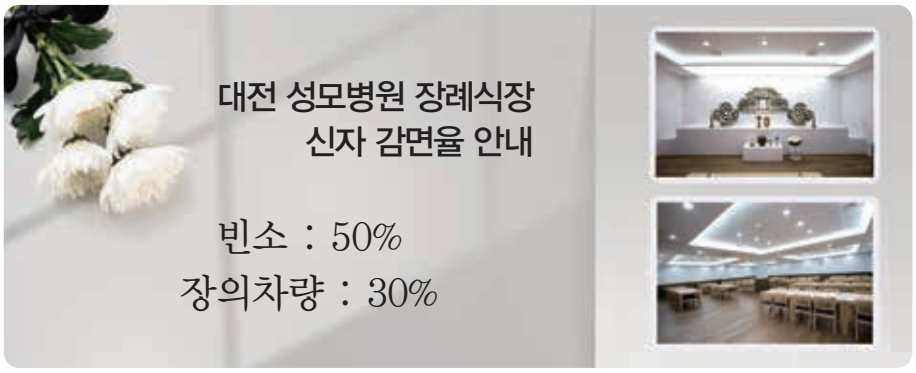
예수수도회 메리워드 심리상담센터
- 심리 상담(개인, 부부, 가족)
  - 문의 : 010-5784-8585
- 모래놀이 치료(아동, 청소년, 성인)
  - 문의 : 010-3488-6765
- 곳 : 예수수도회 교육센터(성모여고 내)

성골롬반외방선교회 평신도선교사 관심자모임
- 때 : 3.14(주일) 14:00~17:00
- 곳 : 평신도선교사센터(서울)/비대면
- 대상 : 해외선교에 관심있는 24~40세 신자
- 문의 : 010-3817-0567 (노혜인 선교사)

십자가 성요한 영적가르침 비대면 강의
-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20:00~22:30 3.10(수)~12월까지
- 총 4학기(한 학기당 14만원)
- 문의 : 전교가르멜수녀회 010-8588-7339

유사종교 피해사례 접수 및 상담

• 문의 •
010-5812-0192
010-5812-0193(대학생, 청년)
• E-mail •
yusadaejeon@gmail.com
교구 유사종교 대책위원회



103위 한국 순교성인 문답

김성열 / 도서출판 프린트샵 / 20,000원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103위 한국 순교성인 문답」은 한국 초기교회 박해시대의 역사, 103위 한국 순교성인들의 삶과 신앙의 증거, 순교성인들과 연관된 교구별 성지를 자세히 안내할 뿐만 아니라 순교성인들의 후손인 우리의 신앙 여정길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을 통해서 우리는 한국 초기교회 신앙선조들의 삶과 신앙을 되짚어 보며 위주치명(爲主致命: 하느님을 위하여 목숨을 바침) 하면서까지 신앙을 지켰던 순교정신이야말로, 오늘날 우리 후손들이 본받아야 할 훌륭한 신앙유산임을 깨닫게 된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밤9시 주모경 바치기

킴벨피부과병원 국내 유일 피부과 2차병원 (042)471-7575	**대형환경(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철거공사·순환골재 및 토사생산) 계룡I.C 인근 T. (041)732-0620 대표 강희권 율리오	**이안과병원** 전문분야별 6인진료 T. (042)220-5500	**베타니아 성물센터** 혼배 · 묵주반지, 전례복, 전례용품 월-금 09~18:00 / 토 14:00~18:00 국내외성물 T. (042)226-8980	**한강 외과** 치질, 대장내시경, 외과수술 김성철(대철베드로) 오룡역 2번 출구 T. (042)523-9856
구 정신건강의학과 (심리상담, 우울증, 공황장애) 원장 구미량(헬레나) 롯데백화점 건너편 T.(042)532-7009	**효안과 (전, 눈빛안과)** 노안 · 백내장 · 라식 · 라섹 이효(바오로) T. (042)486-5050 둔산동 1110번지 8층 경성큰마을 사거리	**대전성모안과** 원장:박인철(미카엘) Since 1998 (전)우리성모안과 원장 (전)눈빛안과 원장 롯데백화점 맞은편 T. (042)533-0078	**플랜트 치과** 손외수 대표원장, 양찬영(스테파노), 김명균(바오로) 원장 외 20명 의사 협진 T. (042)825-2275 유성 홈플러스 옆	**광고 모집** (042)257-0190
광고 모집 (042)257-0190	**광고 모집** (042)257-0190	**광고 모집** (042)257-0190	**광고 모집** (042)257-0190	**광고 모집** (042)257-0190

교구장 동정

3월 8일(월)~14일(주일)

- 3월 8일(월)~12일(금) – 춘계주교회의(CBCK)
- 3월 14일(주일) – 견진(당진 10:30)

사순 시기 사랑의 나눔

사순 제4주일 지향 : 해외 선교를 위해
사순 제5주일 지향 : 교구 내 사회복지 시설을 위해
주님 수난 성지 주일 지향 : 공동체 헌금의 날
주님 수난 성 금요일 지향 : 예루살렘 성지복구와 보존을 위해

사순 제3주일 지향 : 천안쌍용2동성당

천안쌍용2동성당은 천안쌍용3동성당을 모본당으로 하여 2006년 1월에 신설된 본당입니다. 천안쌍용2동성당 공동체는 2006년부터 한마음으로 성전 건립을 위해 노력하여 12년 만에 새 성전을 완공하였고, 2018년 9월 교구장 유흥식 라자로 주교님의 주례로 성전을 봉헌하게 되었습니다. 신설 본당으로 시작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전토지매입과 성전건축에 전 신자들이 하나로 뭉쳐 매진하고 있으나, 오랜 성전건축으로 조금씩 지쳐가고 있고 여전히 많은 부채와 이자 부담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새 성전에서 하느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아름답게 주님을 찬미할 수 있도록 교구의 모든 신부님과 형제 자매님의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사순 시기 '사랑의 나눔'을 통해 다시 한번 저희 공동체가 힘을 낼 수 있도록 기도와 정성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중 제3주일 하느님의 말씀 주일 기념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선포하신 '하느님의 말씀 주일'을 맞아,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일상의 삶에서 하느님 말씀이 지니는 큰 중요성"을 기억할 수 있도록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코로나19로 많은 것이 단절된 이 시기에, 개인과 공동체가 지니고 살아가는 하느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웃과 나누며, 말씀을 살아가는 지혜와 힘을 서로에게 선물할 수 있도록, 하느님 백성 공동체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공모 기간

2021년 1월 24일(하느님의 말씀 주일) ~ 3월 28일(주님 수난 성지 주일)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 QR코드를 스캔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내 · 성환공원묘원 봉안(납골)담 분양 안내

◎ 가격
- ○ 1인실 사용료 2,500,000원(산내) / 3,500,000원(성환)
- ○ 관리비는 20년간 500,000원

◎ 문의
- ○ (044)270–3028 교구청 관리국
- ○ (041)546–7265 성환묘원 사무실

cpbc 대전가톨릭평화방송 FM 106.3MHz「오늘의 강론」 3월 8일(월)~13일(토) 오전 6시 50분 병원사목(선병원) 전담 이강우 신부 편